

▶ 우진문화재단 '판소리 다섯바탕의 멋'

소문난 명창들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소리에 '흠뻑'

박양덕 · 김일구 · 송순섭 · 안숙선 · 유영애 등 초청 내일부터 29일까지

해마다 4월이면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는 판소리 명창들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흐르고, 이를 감상하기 위해 전주의 소문난 귀명창들이 속속 찾아온다.

우진문화재단은 25~29일 송순섭 · 김일구 · 박양덕 · 유영애 ·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다섯바탕의 멋'을 선보인다.

공연은 각자의 소리뿐 아니라 유파도 달라서 다양한 바리의 소리에 흠뻑 취할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박양덕 명창(고수 김병영 · 유기영)은 유성준·박초월·박양덕으로 맥이 이어지는 미산 박초월계 '수궁가'를 들려준다. 동편제로 분류되는 판소리 수궁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 가장 우화적이며 풍자·해학적이다. 왕과 신하간의 '뽕'을 소재로 한 내용으로 재담과 남성적이 사실이 돋보인다.

26일 김일구 명창(고수 조용안)은 송흥록 명창으로부터 시작, 송광록·송우룡·송만갑·박봉술로 이어지는 이른바 동편계 송관 '적벽가'를 부른다. 이는 현재 가장 폭넓게 전창되는 바리로 이날 공연에는 적벽가 중 군사설움부터 장승터령 대목까지를 선보인다. 이 대목은 '적벽가의 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긴박하고 박

진감 있는 적벽가의 진수를 담고 있다.

27일 송순섭(고수 박근영) 명창이 들려 줄 '홍보가'는 동편계 송만갑 바리가 가장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특히 홍보가 발먹는 대목이라든지 놀보 박통 속에서 놀이패가 나와 잡가를 부르는 대목 등은 재담 소리라 하여 여자들이 소리하기를 꺼려 현재 그 부분을 부르는 명창이 별로 없는데 송순섭의 홍보가는 그런 대목들을 잘 이어오고 있다.

28일 안숙선(고수 김청만)의 김소희계 '춘향가'의 특징은 어느 유파보다 춘향가의 비극적 상황이 두드러지고 대미의 해소가 극적이다. 정정렬 바리를 계승한 김소희는 정정렬계에는 없는 '썩대머리'를 첨가했다. 이는 명창의 더늠을 계승하면서 춘향의 비극적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29일 유영애(고수 조용복) 명창의 '심청가'는 강산제로서 조선 고종 때 박유전이 참사했다. 박유전 자신이 서편제의 수령이었던 만큼 서편제를 그 바탕으로, 지나치게 애절한 면은 지양하고 동편제의 웅건함과 중고제의 분명함을 적절하게 배합했다.

공연은 전석 만원으로 25~28일 오후 7시, 29일 오후 5시 열린다. /정해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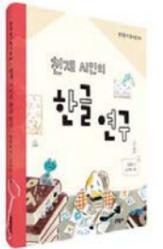


박양덕 명창

어른들이 못느끼는 아이들의 모습

경중호 시인, '천재 시인의 한글 연구' 출간

곡류/여기저기 쪼지 말고/한 곳만 쪼야 해/여길 보렴/이제 틀이 생겼잖아/눈을 크게 뜨고 봐야지/날개를 내밀고/꼬리도 펼치고/한 발/한 발씩 내딛는 거야/그럼 돼! -책머리에 '첫걸음을 떼는 아기 새' 중에서-



시인 겸 교사인 경중호 씨가 첫 동시집 '천재 시인의 한글 연구' (문학동네)를 펴냈다.

책에는 아이들이 걸게 될 걸음걸음마다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편편히 걸려 있다.

그는 "아이들은 숙제로 내준 일기쓰기를 귀찮아하며 한 줄짜리, 두 줄짜리 동시로 대신하는 편을 봤다. 그런 글의 맞춤법과 문장 구조는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뜻을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웠지만, 아이들의 그런 글을 보는 것이 좋았다"고 한다.

그에겐 아이들이 직접 쓴 글들이 동시를 쓰는 지침서이었기에, 그의 동시는 어른들이 짐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천연덕스럽게 그려내고 있다.

우리 집과 학교를 너무 가깝게 했다/내 목숨보다 소중한 휴대폰을 엄마의 서랍 속에 넣었다/아빠와 엄마가 서로 짜러보다가 결국 엄마만 인방에서 끄떡 잃게 했다/토요일, 친구의 생일 초대장을 구겨 쓰레기통으로 보냈다. -'오늘 성적표가 한 일'-

동시집은 저자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긴 하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정정해 주거나 아난치며 가르치려는 선생님의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 '그 발은 그늘져서 아무것도 안 켜. 애들이나 놀게 해.'라는 (뱃발) 할머니의 말은, 경 시인이 아이들 곁의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정해은 기자

부채 위 담겨진 수묵화 중국의 멋 엿보다

군산예술전당서 선명전 개막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해지며 중국의 많은 화가들이 즐기고 있는 예술 선명화, 부채에 그려진 중국의 예술작품들이 군산을 찾았다.

군산시에 따르면 '중국국가화원 중국화 선명작품전 개막식'을 지난 21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문동신 군산시장, 스 루이린 주한중국문화원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등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들과 미술 및 서예관련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10월 맺었던 군산시와 주한중국문화원이 문화예술 공연·전시에 대한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국가화원에 소속된 우수 예술가 39명의 중국화 선명작품 78점을 군산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막식에서는 장장저우 중국 국가화원 부원장이 군산시민들에게 보내는 축하메시지 영상을 통해 현대 중국 수묵화의 기본적인 창작법, 규칙 등을 설명해 주고 직접 수묵화를 그리는 모습까지 보여 전시회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문동신 시장은 "군산에서 중국국가화원의 멋진 작품을 전시해 시민들이 품격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다"며 "주한중국문화원과 협력해 한중문화예술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고창군립미술관 작품 기증 '활발'

고창군립미술관에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 기증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군립미술관에 최근 고희정 최만규 화백의 '대가람 송광사 풍경'의 2점을 지난해 4월 29일 작고한 고창출신 향농 김성수 선생의 미망인 김영희 여사가 소장하고 있다가 고창군에 기증의사를 밝혀 기증자와 작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눈길이 가고 있다.

향정 최만규 화백과 향농 김성수 선생은 고창군 성승면 출신으로 작고하기 전 학문과 예술 대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았던 사이다.

향정 최만규 화백은 청각장애인 화가로 한국화의 명인인 윤보 김기창 화백에게 사사 받고, 자신의 추백기인 기와집과 설경 등 작품을 출품해 작고하기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도립미술관, 중국 충칭 소재 레지던시와 협약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장성원)은 중국 충칭 소재 사천 미술학원 신매체예술센터, 싼방예술센터, 오르간하우스와 레지던시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대 3개월까지 레지던시 공간 및 숙박시설 제공, 왕복항공권과 재료비 50만 원 정도 지원, 기관의 주요 프로그램(비평가와외의 대담 및 결과 보고회) 참여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입주자 선정은 각 기관에서 미술가를 추천받아 도립미술관과 중국 충칭 소재 레지던시 기관이 3명씩 맞교환한다. 이에 도립미술관에서는 매년 중국 충칭시 미술가를 3명 정도 받아들이고, 전북 미술가를 3명 정도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창작스튜디오는 앞으로 해외 창작 스튜디오와 연계하면서 국내 미술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역미술가를 육성하고 국제교류를 촉진하는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부래만복~ 부안에 오셔서 오복을 가득 받아가세요

제54회 The 54th Jeollabukdo Sports Festival

전라북도민체육대회

개막 · 축하공연 4월 28일(금) 오후 6시 ~ 10시 부안군 스포츠파크 내 특설무대

6시 흥진영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B1A4, 우주소녀 등의 축하 속에 3일간 전북도민체전 일전 돌입

B1A4

남진

홍진영

소찬휘

우주소녀

아이스 (I.C.E)

윙크

제54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2017.4.28^①~4.30^②/3일간

제54회 전라북도민장애인체육대회

2017.5.10^①~5.11^②/2일간

축복의 땅 부안에서 생동하는 전북의 꿈